

2024.01.22.(월)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4-01-22 오전 4:16

수정한 날짜: 2024-01-22 오전 4:21

2024.01.22.(월) 증권사리포트

롯데케미칼

올해도 작년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출처\] NH투자증권 최영광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130,000원으로 하향

롯데케미칼에 대한 목표주가를 130,000원으로 10% 하향.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스프레드 약세를 반영해 2024년 EBITDA 전망치를 11% 하향한데 기인. 공급 과잉 상황 하에서 큰 폭의 유가 하락이 업황 반등의 선결 조건으로 판단하나, 2024년 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며 투자의견 Hold 유지

2021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상회하는 가운데 2022년부터 바닥권에서 횡보 중인 석유화학 스프레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상황. 산업 내 업황 개선 시그널 역시 부재. 2024년 신규 증설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및 고유가로 인한 높은 원가 부담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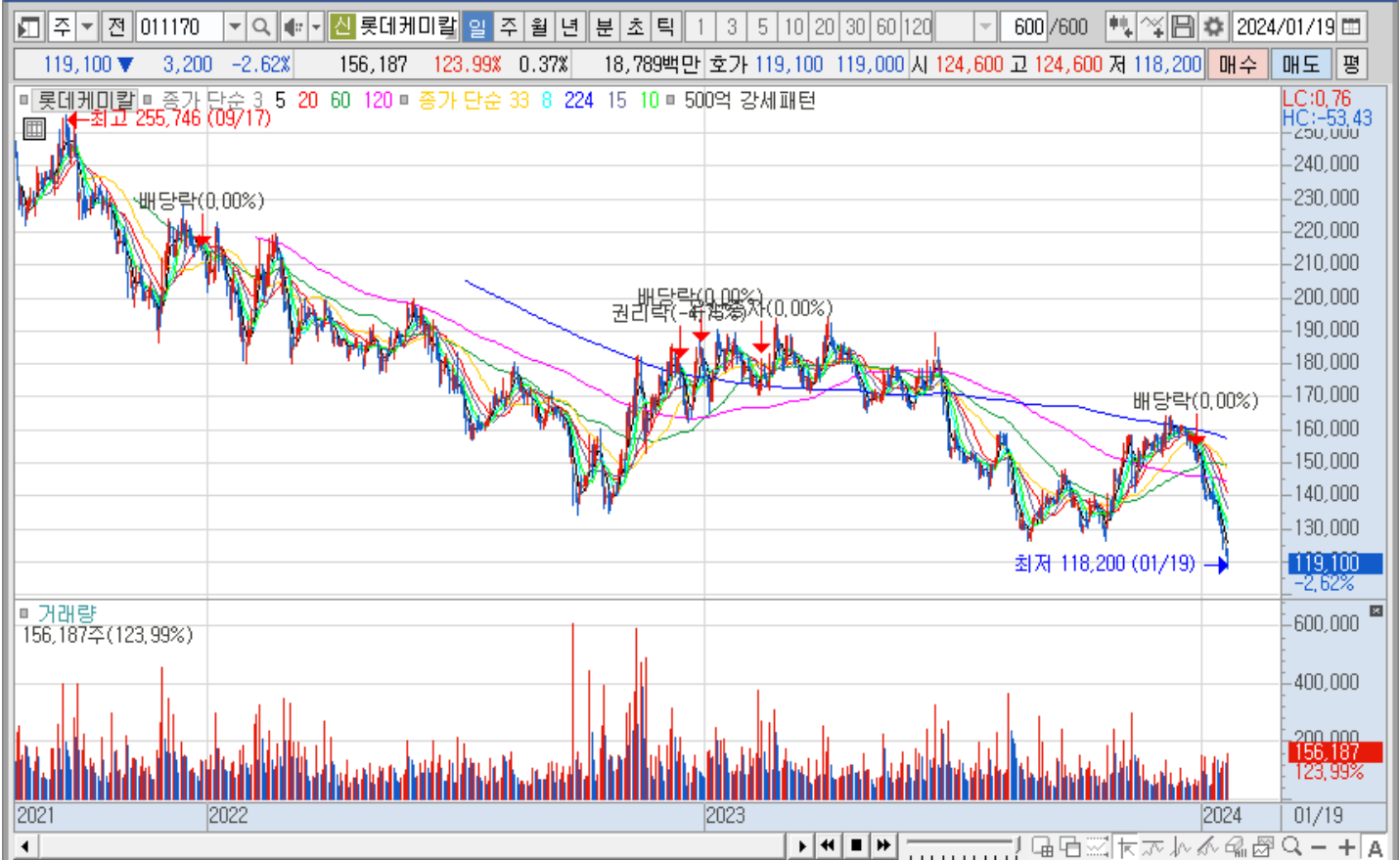
4Q23 Preview: 미국을 제외하고 석유화학은 모두 감익

2023년 4분기 매출액 4.7조원(-2.1% q-q), 영업적자 2,088억원(적자 전환 q-q, 영업이익률 -4.5%) 전망. 스프레드 약세 및 전분기 발생했던 재고평가손익 및 긍정적 래깅 효과 소멸 영향

에탄 가격 하락(-22% q-q) 영향으로 영업적자 폭 축소가 가능한 LC USA를 제외하고는 전 화학사업부문의 전분기 대비 감익 예상. 4분기 두바이유 가격은 전분기 대비 3% 하락했으나, 러시아 및 중동의 수출 차질로 인해 납사 가격은 전분기 대비 2% 상승하며 스프레드 약세 요인으로 작용. 4분기 큰 폭의 영업적자로 인해 실적 기저가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거나, 2024년에도 기초소재, LC Titan 등 범용성 석유화학 사업의 연간 영업적자는 지속될 전망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22,276	19,463	20,914	21,408
증감률	22.9	-12.6	7.5	2.4
영업이익	-763	-284	267	669
증감률	적전	적지	흑전	150.5
영업이익률	-3.4	-1.5	1.3	3.1
(지배지분)순이익	62	-33	110	431
EPS	1,709	-793	2,566	10,070
증감률	-95.4	적전	흑전	292.5
PER	104.4	N/A	47.7	12.1
PBR	0.4	0.4	0.3	0.3
EV/EBITDA	61.9	15.9	7.5	5.8
ROE	0.4	-0.2	0.7	2.8
부채비율	55.1	73.3	78.5	80.9
순차입금	2,528	4,911	5,425	5,709

단위: 십억원, %, 원, 배



팜트론

Change, Change, Change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Inspection 전문기업

팜트론은 02.1월 설립, 22.11월에 코스닥 상장된 검사장비 제조기업이다. 2004년 SPI 개발, 2013년 AOI 개발, 2015년 MOI 개발, 2016년 반도체 코팅검사장비, 2020년 MEMS 검사장비, 2021년 Package AVI장비(Apollon) 등 지속적인 R&D를 통해 검사장비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인건비, 리쇼어링, 경박단소/미세공정 등으로 Inspection에 대한 중요도가 상향되고 있다. 특히 2024년은 신제품, 영역 확대, 투자 확대 등의 요인들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에 주목: Large Client, Multi Line-up, In & Out

동사는 3가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첫째, 고객사의 변화이다. 과거 중소형 고객사에서 대형 고객사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 및 신규 매출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속적인 R&D를 통해 검사장비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SMT에서 반도체, 2차전지 등으로 영역을 확대 중이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 관련 다양한 검사장비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된다. 셋째,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요인을 확보 및 구축하고 있다. Vision과 X-Ray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내부와 외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향후 매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전망

23.3분기 누적 매출액(545.7억원)은 전년대비 29.7% 증가, 분기별 매출액 변화가 크지 않아 23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4년에도 실적성장(매출액 866억원, 영업이익 152억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고객사 확대, 고객사 내 투자가 전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 패키징 관련 산업의 변화 및 투자확대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579	612	722	866
영업이익	40	64	104	152
지배순이익	45	53	80	117
PER	-	12.7	23.7	18.5
PBR	-	2.8	5.4	4.5
EV/EBITDA	-	9.9	7.6	5.4
ROE	51.0	28.0	26.3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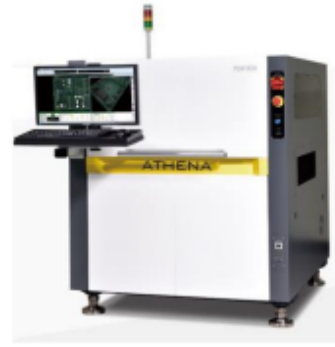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2] SMT 검사장비: SPI



자료: 펄트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SMT 검사장비: AOI



자료: 펄트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반도체 검사장비: 8800WI



자료: 펄트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반도체 검사장비: ZEUS



자료: 펄트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LS ELECTRIC

비수기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 달성 기대

[\[출처\]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10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LS ELECTRIC 목표주가 100,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전력인프라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부터 나타난 자동화 부문 실적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유통 재고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상반기 이후부터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다시 증익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 2024년 추정 기준 PER 9.3배, PBR 1.0배다.

4Q23 영업이익 621억원(YoY +137.6%) 컨센서스 하회 전망

4분기 매출액은 10,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화와 자회사 매출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력 부문의 외형 추이는 견조한 가운데 전력인프라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사 수주잔고 추이는 지난 3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력인프라 부문만 놓고 보면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은 6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6% 증가할 전망이다. 4Q22 전력인프라 적자전환과 신재생 부문 일회성 비용에 의한 실적 부진 기저효과가 대규모 증익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전방 시장 수요 둔화에 따른 자동화 부문 부진과 계절적 비수기 전력기기 이익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이익 규모 둔화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력인프라는 분기 기준 최대 이익 달성이 기대된다. 전력기기는 올해 대규모 증익 추세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자동화와 신재생은 적자 기조가 유지되나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회사의 경우 완성차 업체 투자 지연 등의 영향으로 EV-Relay 매출이 둔화되는 흐름이며 12월 공장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소폭 감익이 예상된다.

유럽 ESS 수주 긍정적. 중장기 글로벌 배전 투자 사이클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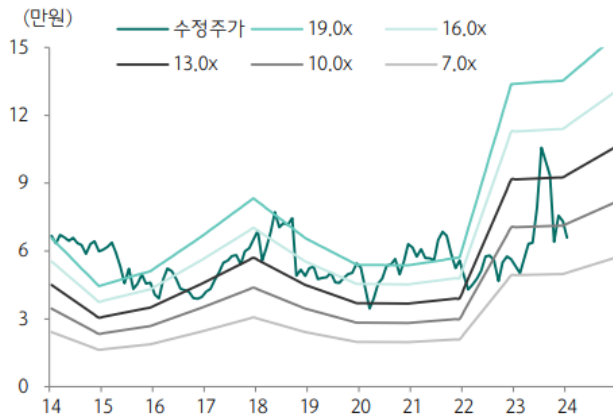
현재 호황을 맞이한 초고압변압기 매출 비중이 작다는 부분을 최근 주가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로 볼 수 있다. 향후 북미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노력들이 실적 및 수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초부터 영국 등에서 상당한 규모의 ESS 수주를 달성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사이클이 지속되는 동안 ESS를 포함한 배전 설비 투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역량 확대 기회를 꾸준히 모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향후 주파수조정용, 장주기 ESS 투자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외 배전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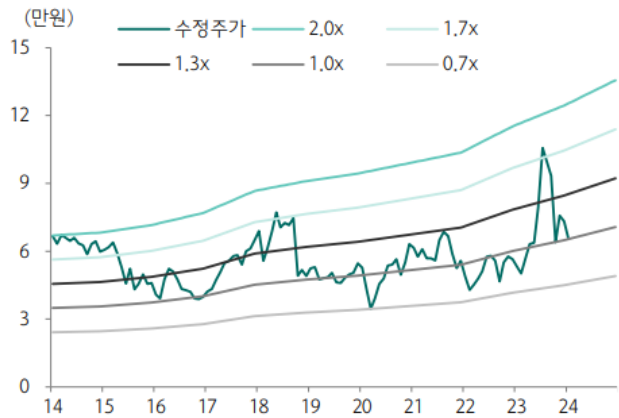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668.3	3,377.1	4,246.4	4,160.6
영업이익	155.1	187.5	318.9	288.4
세전이익	110.7	127.0	278.0	274.0
순이익	84.7	90.3	211.4	213.7
EPS	2,825	3,010	7,046	7,124
증감율	(0.49)	6.55	134.09	1.11
PER	19.75	18.74	10.39	9.25
PBR	1.11	1.07	1.25	1.04
EV/EBITDA	6.55	6.89	6.04	5.40
ROE	5.86	5.95	12.88	11.87
BPS	50,239	52,595	58,482	63,159
DPS	1,000	1,100	2,500	2,500

도표 2. LS ELECTRIC 12M Fwd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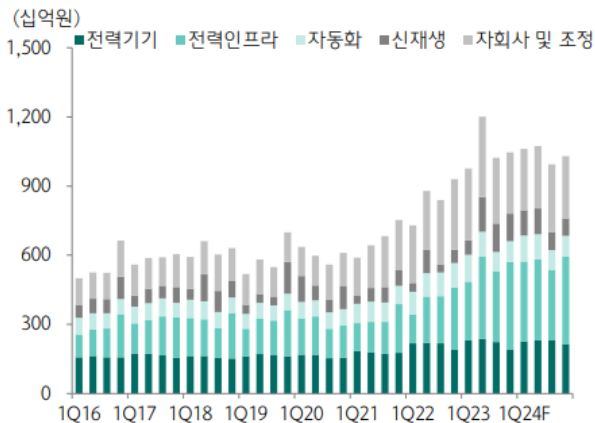
자료: LS ELECTRIC, 하나증권

도표 3. LS ELECTRIC 12M Fwd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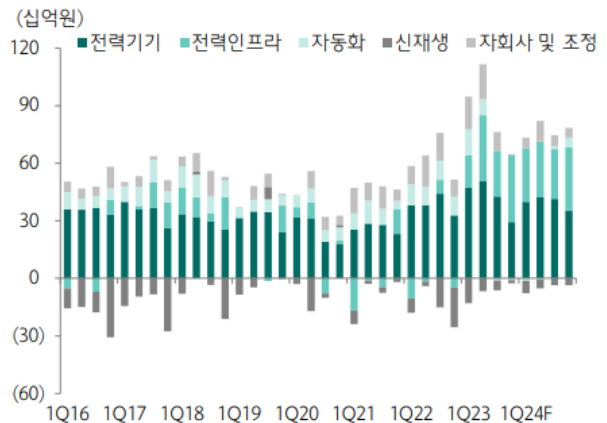
자료: LS ELECTRIC, 하나증권

도표 4. 분기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LS ELECTRIC, 하나증권

도표 5.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LS ELECTRIC, 하나증권



OCI홀딩스

굿딜 : 단기 수급 악재를 매수의 기회로

[\[출처\] DS투자증권 양형모 애널리스트](#)

이런 굿딜을 마다할 경영자는 없을 것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 간 그룹 통합을 발표했다.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7,703억원에 인수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굿딜이라고 평가한다. 1) 부침이 많은 태양광 업종의 특성을 안정적인 제약 비즈니스로 일부 상쇄 가능하고, 2) 디레이팅 받는 주가를 제약/바이오의 다양한 모멘텀으로 일부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3)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열었으며, 4)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 현금 보유보다 나은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당장 한미그룹이 OCI그룹으로부터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니 이런 굿딜이라면 마다할 경영자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통합 이후 보수적으로 봐도 여전히 PBR은 싸다.

펀더멘탈,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無 → 단기 수급 악재에 불과

다만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했다. 이는 1) OCI홀딩스의 투자포인트였던 폴리실리콘에 대한 아이덴티티 훼손이라고 보는 시각과, 2) OCI홀딩스와 한미그룹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3) 그룹 통합의 시너지가 불확실하며, 4) 한미사이언스의 이익 기여도가 크지 않고, 5) 너무 급작스러운 딜이었으며, 6) 장남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펀더멘탈의 훼손 가능성은 적고 이익 기여도는 현금 보유 대비 나은 선택이며 장남과 법적 이슈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키맨(12% 보유)으로 있는 이상 복잡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한다.

말레이시아(OCIMSB) 폴리실리콘에 주목

우리는 동사가 장기공급계약을 맺었고 이는 폴리 가격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평가 기준으로 MSB는 연간 약 3,000억원 이익 시현이 가능하다. 프리미엄은 장기화될 것이다. 또한 이미 발표된 증설 계획이 사라와 주의 더딘 진행으로 지연 중이다. 미래에 현실화될 경우 1만톤 당 최소 800~1,000억원이익이 증가하겠다. 증설은 80,000톤 계획 중이니 매우 크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3,244	4,671	2,694	2,811	3,000
영업이익	626	977	597	542	600
영업이익률(%)	19.3	20.9	22.2	19.3	20.0
세전이익	612	1,002	646	530	59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48	880	813	398	443
EPS(원)	27,156	36,910	41,034	20,106	22,363
증감률(%)	흑전	35.9	11.2	-51.0	11.2
ROE(%)	23.9	25.2	20.9	9.9	10.1
PER(배)	3.8	2.2	2.3	4.7	4.3
PBR(배)	0.8	0.5	0.5	0.4	0.4
EV/EBITDA(배)	4.2	2.2	2.2	1.7	1.2

자료: OCI홀딩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제이브이엠

다시 한번 확인될 수출 성장세

[출처] IBK투자증권 이견재 애널리스트

시장 기대치 부합 전망

제이브이엠의 4Q 예상 실적을 매출액 428억원(+9%, YOY) 영업이익 96억(+62%, YOY)으로 전망. 4분기 예상 실적 중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4분기 실적 투자 포인트는 높은 영업이익률이며 이는 계절적 성수기에 맞춰 수출 호조가 확대되었기 때문

동사는 최근 로봇팔을 대형 ATDPS 장비에 탑재해 100% 무인화에 성공한 MENITH의 유럽향 판매가 시작되었음. 4분기 수출 실적 호조는 동사의 핵심 수출 지역인 유럽과 북미 모두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며, 24년은 수출이 내수 비중을 앞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 전망

상승 여력 충분한 밸류에이션

동사는 오랜기간 자신만의 분야에서 성장과 변화를 지속해 왔음. 특히 상당기간 공들인 해외시장 확대가 22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됨

23년 2,3분기 실적에서 수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열리는 모습 보였지만 금번 4분기 실적을 통해 수출 실적 성장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4년은 해외 수출 실적 성장 외에도 다가오는 6월 건기식 소분 판매 허용에 관한 호재도 대기하고 있어 현재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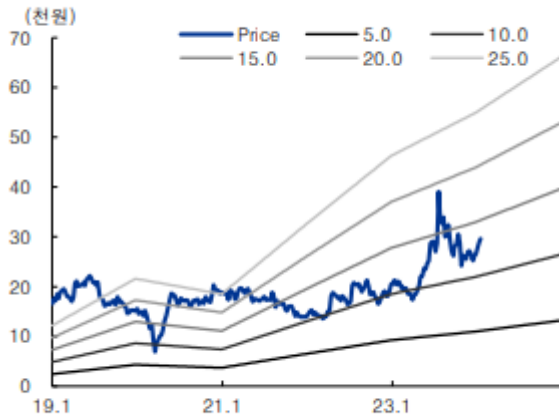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2,000원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2,000원을 유지함

(단위: 억원, 배)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1,158	1,420	1,560	1,697	1,880
영업이익	125	220	295	335	374
세전이익	94	213	324	352	419
지배주주순이익	90	158	224	266	319
EPS(원)	740	1,303	1,851	2,198	2,641
증가율(%)	-14.3	76.0	42.0	18.7	20.2
영업이익률(%)	10.8	15.5	18.9	19.7	19.9
순이익률(%)	7.8	11.1	14.4	15.7	17.0
ROE(%)	6.4	10.4	13.4	14.1	14.9
PER	18.8	15.7	14.3	13.5	11.2
PBR	1.2	1.6	1.8	1.8	1.6
EV/EBITDA	7.7	7.8	7.3	7.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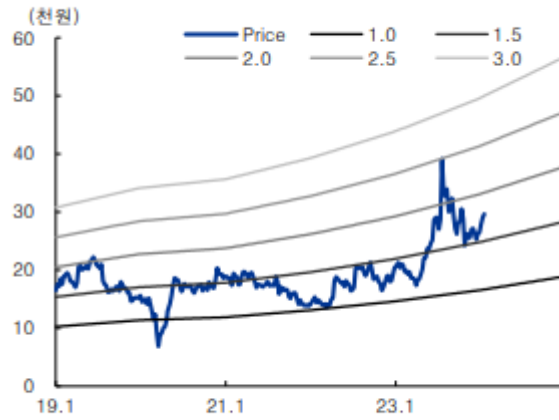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Forward PER Band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Forward PBR Band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NHN

부족한 한 방

[출처] NH투자증권 안재 애널리스트

더딘 회복

NHN에 대한 투자 의견을 Hold로 하향하고 목표주가도 기존 29,000원에서 23,500원으로 하향. 웹보드 게임의 안정적 매출에도 다른 게임들의 성과가 크지 않고, 2023년 중 회복을 기대했던 커머스 사업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 '다카스트데이즈(루트슈터)', 일본 유명 IP 기반의 '프로젝트G(RPG)',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우파루오딧세이(SNG)'가 기대작이고, '페블시티(소셜카지노)', '프로젝트D(액션)', 히든위치(퍼즐)의 신작이 있으나 성과는 지켜볼 필요. 2023년 부진했던 클라우드, 커머스, 웹툰 사업의 성과도 2024년 회복을 확인해야 할 것. 페이코 사업은 2024년부터 삼성페이와의 제휴 종료로 거래대금 감소가 불가피하나, 손익에는 오히려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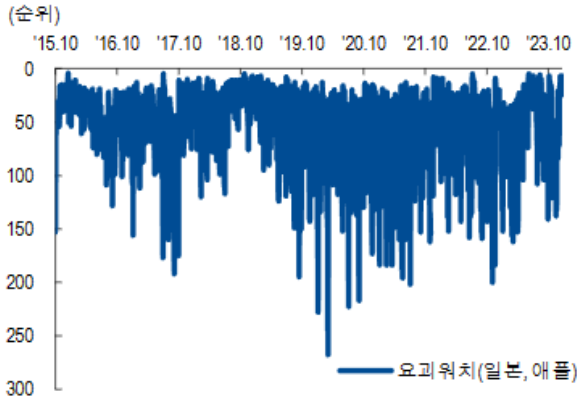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 실적

NHN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6,076억원(+8.4% y-y, +6.3% q-q), 영업이익 103억원(+2.8% y-y, -55.8% q-q)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258억원 및 시장 컨센서스 221억원을 하회할 전망. 3분기 양호했던 웹보드 게임 매출과 일본 '요괴워치푸니푸니'의 성과가 4분기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고, 커머스 사업은 광군제 시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클라우드 사업 역시 정부 수주 지연에 따라 4분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마케팅비용은 214억원(-23.8% y-y, +8.2% q-q)으로 안정되겠지만, 연말 결산에 따른 각종 일회성 비용 발생할 수 있어 수익성 부진 불가피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2,115	2,279	2,555	2,729
증감률	9.9	7.8	12.1	6.8
영업이익	39.1	73.7	86.6	90.4
증감률	-60.1	88.5	17.5	4.4
영업이익률	1.8	3.2	3.4	3.3
(지배지분)순이익	-32.1	53.5	62.1	64.9
EPS	-869	1,521	1,777	1,858
증감률	-	-	16.8	4.6
PER	N/A	15.4	11.6	11.1
PBR	0.5	0.5	0.4	0.4
EV/EBITDA	4.8	3.9	3.2	2.8
ROE	-1.8	3.2	3.7	3.7
부채비율	51.8	54.8	57.0	57.8
순차입금	-628.5	-504.1	-461.9	-4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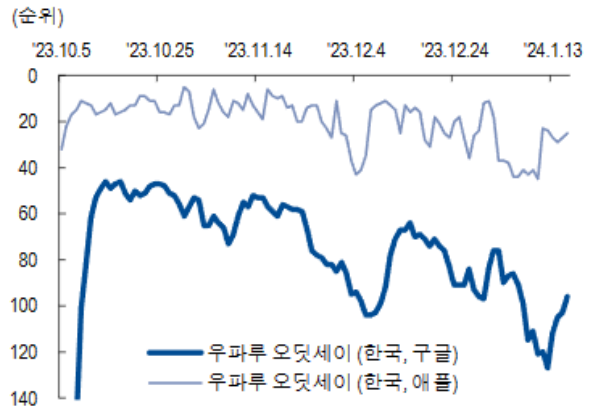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요괴워치 푸니푸니' 앱스토어 매출 순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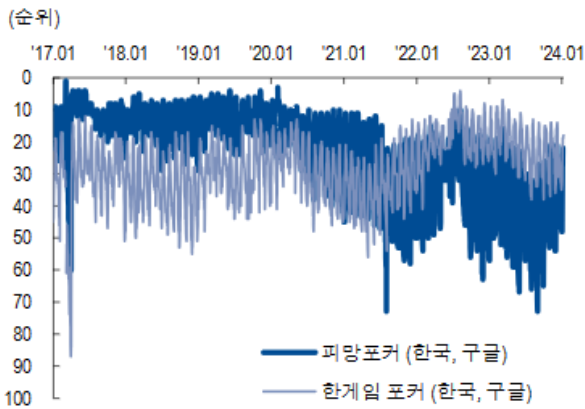
자료: data.ai, 구글, 애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우파루 오딧세이' 앱스토어 매출 순위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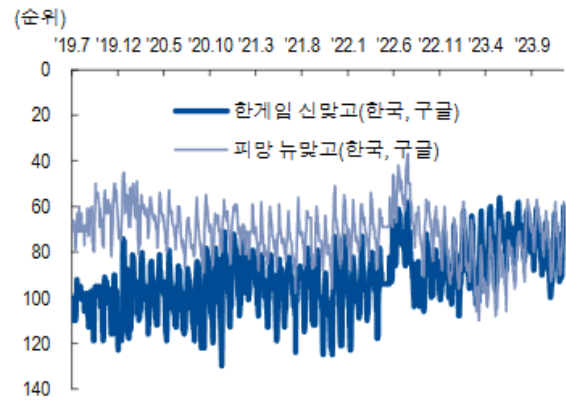
자료: data.ai, 구글, 애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국내 포커 게임 매출 순위 (구글)



자료: data.ai, 구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국내 맞고 게임 매출 순위 (구글)



자료: data.ai, 구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현재 실적의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

[\[출처\] 키움증권 권준수 애널리스트](#)

4Q23 영업이익 45억원, 시장 컨센서스 하회 전망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4Q23 실적은 매출액 2,156억원(-1%QoQ, +26%YoY), 영업이익 45억원(+49%QoQ, -70%YoY)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영업이익 컨센서스 70억원). 주요 고객사의 수요 증가로 10월판매량은 증가했으나, 11~12월 출하량은 고객사의 연말 재고조정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사의 CAPA 증설 속도(말레이시아 3,4 공장) 대비 고객사의 증설 지연과 중국의 회로박 업체들의 전지박 제품 전환 등으로 인한 Overcapa.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전기로 상승, 가동률 하락, 높은 재고 수준 및 제품 믹스(하이엔드 I2S 비중 4% 추정) 영향으로 낮은 수익성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4Q23 영업이익률 2.1%).

2024 영업이익 549억원(+261%YoY) 전망

2024년 실적은 매출액 9,504억원(+20%YoY), 영업이익 549억원(+261%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 실적은 상저하고로 예상되며,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3Q23을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당사 실적 및 업황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점은 중국발 공급과잉 완화 및 전방 수요 회복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실적의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판단되며, 23년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전년 동기대비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회복 시점,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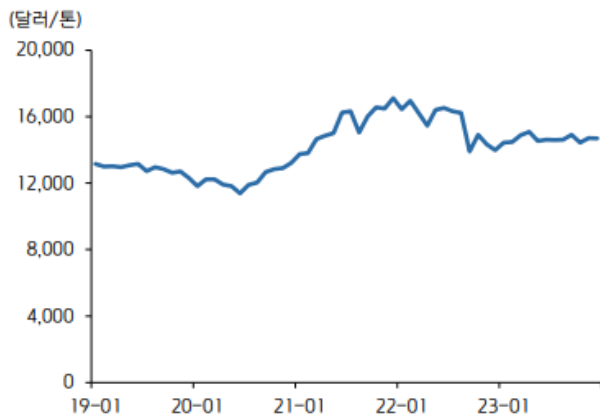
동박 산업 내 단기적인 실적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1) 올해 말레이시아 5,6 공장의 CAPA 증설효과 본격화가 기대되며(23년 6만톤 > 24년 8만톤 > 28년 24만톤), 2) 고객 다변화 및 장기공급계약 비중 확대(장기적으로 90% 수준까지 확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사의 주력 고객사인 삼성SDI가 최근 유럽/북미 투자를 확대 중에 있어, First Vendor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밸류에이션의 경우 24년 P/B 1.21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 수준이며, 말레이시아 공장의 선제적 투자를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 실현이 예상된다.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으로 목표주가를 60,000원으로 하향하지만, 중장기 성장성 관점에서 'BUY' 의견을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688.9	729.4	795.0	950.4
영업이익	69.9	84.8	15.2	54.9
EBITDA	112.8	137.4	103.1	181.8
세전이익	78.2	60.5	-38.1	44.5
순이익	63.2	49.0	-33.1	35.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2.8	43.8	-29.6	30.1
EPS(원)	1,361	950	-643	652
증감률(%YoY)	46.9	-30.2	적전	흑전
PER(배)	99.2	54.6	-65.4	56.3
PBR(배)	6.30	1.64	1.39	1.21
EV/EBITDA(배)	54.8	16.3	19.0	11.5
영업이익률(%)	10.1	11.6	1.9	5.8
ROE(%)	7.8	3.6	-2.1	2.2
순부채비율(%)	-29.9	-34.4	-26.3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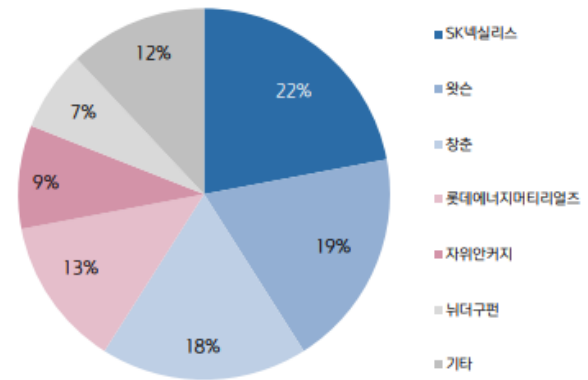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동박 수출 가격 추이(전북 익산시)



자료: KIT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전세계 동박 시장 점유율(2021년 기준)



SNE Resear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구리 가격 추이(LME Copper 3M, Forward)

